



사람을 잇는 가교, 차별을 넘는 선교

디아스포라 이슈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선교 전략을 나누는 회의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제주에서 '디아스포라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을 주제로 로잔 GDN(Global Diaspora Network)이 주관한 '제주 디아스포라 컨설팅'이 성황리에 열린 데 이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MDN:Malaysia Diaspora Network)가 주최한 '4차 국가별 이주민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교를 세우며 차별을 멈추라'(Building Bridges, Closing Gaps)는 주제로 쿠알라룸푸르 송아이 수방(Sungai-Subang) 감리교회에서 230여 명의 말레이시아 지역 교회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2박 3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부르신 것은 '화해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MDN은 "디아스포라 이주민 공동체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거부와 착취의 피해를

당하며 여러 경우에 따라 폭력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의 하나님의 이주 계획을 촉진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참여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MDN을 설립한 앤드류 응(Andrew Ng) 대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하박국 2:3)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소개하고, 이들을 제자 삼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응 대표는 이어 "많은 사람이 전쟁기근·환경 악화·박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강제로 추방당하고, 수많은 형태의 인신매매로 노예가 된다"라며 "디아스포라 동향에 대한 연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주와 인신매매 등 현재의 세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 대표는 "말레이시아에는 260만 명이 넘는 합법적인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대다수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리트' 부족에 속해 있으며, 많은 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평생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말과 행동,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문창선 대표(GDN 부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말레이시아로 온 이주민 가운데에는 외국인 공장 노동자들, 유학생들, 식당 주인들, 식당 노동자들, 난민들뿐 아니라 큰 사업을 하는 부유한 기업가들도 있다"며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로, 예수님에 대해 효과

적으로 나누려면 가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이어 "우리 모두 다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다. 다리는 강이나 도로·철도 위에 세워져서 사람들과 차량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우리는 연민과 신뢰가 있는 관계적인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인 다리, 신학적 개념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종교적인 다리가 되는 내용을 모아 10월호에 담아보았다.

이주민선교 역사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8·9면

한국오염의 다민족 사역과 TDM 사역자 훈련 6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KWMA 사무국장
미남침례교단 목사
인터서브 네팔선교사



글

박래득 목사

2023년 3분기 KWMA 정책위원회 정기회의가 선교지 탐방을 겸하여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KWMA 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비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물질과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힘에 의한 선교'를 지양하고, 현지인 중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선교에 힘을 모아 교회와 함께 모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 이어 다시금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제8차 NCOWE 이후 7~8개의 후속 모임을 기획하여 한국 선교의 체질 변화를 도모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NCOWE에서 논의된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따라 교단·대형교회·중소형교회의 담임목사들을 초청하여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기독교시대의 선교 동향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독교 부흥 △서구권 교회의 침체가 한국교회의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 등을 알리고, 그 원인과 대안을 공유하여 인식 전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에

정책위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과 더불어, 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단체와 교회 간의 소통 및 협력 채널이 다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을 공유하였다.

또한, KWMA·KWMC(기독교한인 세계선교협의회)·KWMF(한인세계선교사회)가 함께 힘에 의한 선교를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선교를 이루고자 공동 기자회견(23.6.20)을 가졌음을 보고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교 △이주민을 향한 Imago Dei & Hospitality 실천 △모든 성도가 선교인(Mission Mind-ed Christian)의 삶을 사는 것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 후원 △내부인과 젊은 세대가 이끄는 선교를 지향하겠다는 결의가 이어졌다. 이어 선교사에 대해서는 △선교사 중심 △물질 중심의 선교 지양 △현지 교회와 리더의 성장 △네트워크에 집중하는 선교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어서 KWMA와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한교선)의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재산권 이양 정책 공동 결의' 내용이 보고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의서에는 선교지 현지 교단과의 연합이 선교사의 출구전략과 제자화의 바른 리더십 이양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인식하여 단계적 전략 수립과 연합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이를 위해 교단 선교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 선교사의 출구전략과 선교지 재산권 이양에 대한



여 한목소리를 내고 △힘에 의한 선교를 지양하여 선교지 중심의 건강한 선교로 나아가고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은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여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노성천 협동목사는 인도 선교협의회(IMA)가 협력선교를 위해 한국 선교사를 IMA에 파송하여 내부자 혹은 중간자로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시아·중남미가 연합하는 COALA(가칭) 비서구 선교운동 전개를 위해 권역별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정용구 목사가 준비 중인 기후 대응 이슈 관련 포럼을 소개하고 이에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문창선 정책위원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KWMA 이주민 분과와 선교단체의 협업 필요성을 제안하며 지속적인 이주민 사역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보고하였다.

이외 활동으로 'Devotion' 시간에는 이번 회의 일정을 지원해 준 박영기 선교사의 나눔이 진행되었다. 박 선교

사는 38년 넘게 헌신해 온 일본선교의 성과와 은혜를 나누며, 현지인 중심의 선교사역과 더불어 삿포로에서의 놀라운 사역적 진보와 부흥에 대해 전해 주었다. 또한 박 선교사의 인솔로 현지인 사역자가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실제 현지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일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다른 날 나눔 시간에는 박지화 선교사가 중국에서 뜻하지 않게 추방당한 이후로 아무 연고 없는 제주에서 중국인 선교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간증했다. 또한 '미션 차이나 in 제주(MCJ)'와 '선교중국 2030' 사역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이번 일정에 참석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HOPE선교회, 예수제자운동(JDM), 한국오엠, 위디국제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바울선교회, 비전선교단의 사역 소개를 들으며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다양한 선교 소식과 비전을 나누었고,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2023년 10월 15일~12월 03일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ZOOM 비대면 라이브 스트리밍

100,000 원
하나은행 464-910007-22804 위대선교회

문의 : 임진숙 선교사 : 010-7590-0691

등록링크

MMTS

MIGRANTS MISSION TRAINING SCHOOL

심화과정 5기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로잔 디아스포라 글로벌 클래스 룸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스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대면 및 비대면 ZOOM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 수료 후 IC(국제문화교류지도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커리큘럼

-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사역
- 이주민 선교와 교회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 정책의 씨줄과 선교의 날줄
- BAM과 통전적 선교
- 상황화 모델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 타문화와 타종교
-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선교

REGISTER NOW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글로벌엘림재단

재단법인 글로벌엘림 재단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2012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안산 '국경없는 마을'에 위치한 중국인교회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더 전문적인 다문화사역을 감당하고자 교회 산하 외국어에 배국을 국제사역국(CGI)으로 개편하였고, 2013년에 안산 다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까지 외국인 쉼터, 생활법률 상담, 의료지원, 미용봉사, 장학금 지원, 사랑의 쌀과 생필품 후원, 장례식 지원, 생활비 지원, 한국어교실 등의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진행한 행사로는 다문화 축제, 다문화 부모 초청, 다문화인 친구 초청, 사랑의 추석맞이, 결혼이주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자선바자회, 설맞이 행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다문화 선교회와 다문화 봉사단을 결성하여 전국의 이주민 교회를 지원, 방문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외 지역교회에도 방문해 후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들을 위해서 코로나19 기간에 방역물품·의료·생계 지원 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엘림 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했기에 디아스포라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설교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다문화·이주민 사역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엘림재단은 글로벌멘토링센터, 글로벌트라우마센터, 엘림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사역을 확장하



▲ 여름 집중호우 피해 다문화가정 생필품 전달(엘림다문화센터)

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멘토링센터(GMC)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및 단기숙소를 지원하며, 6개 언어권의 자조모임과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 한국어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하여 해외 지역 대학교와 MOU를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트라우마센터(GTC)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이 부족하다는 데 착안하여 10개 언어로 정서적 멘토링 연계, 진로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여 개의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트라우마 상담을 진행합니다.

엘림다문화센터(EMC)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국내외 이주민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고, 교회들과 연합해 다문화·이주민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결핵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의료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복지로는 생필품과 간편식품 등을 담은 '다문화행

복꾸러미'가 있습니다. 문화체험으로 명절 나기, 문화재 및 명소 방문, 음식 체험 등이 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다문화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다문화 인식과 소양교육을 진행한 후에 다문화사역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약 800명의 다문화인이 모여 나라별로 찬양콘서트를 펼쳤으며, 이후에는 장소를 롯데월드로 옮겨 민속촌·어드벤처·아쿠아리움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단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자 간담회, 다문화 콘퍼런스, 연합집회 등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인들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글로벌엘림재단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대학 총장과 언론인 그리고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케냐·콜롬비아 등 20개국 주한외국대사들을 초청하여 재단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산 위기를 맞아 이민청 설립 등 이주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앞으로는 재단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이주민 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법인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글로벌엘림재단은 이처럼 생활·심리 정서 지원, 멘토링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삶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돌아가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 제공 글로벌엘림재단

□ 글로벌엘림재단 Info

- 소재지: 서울 마포구 서강로 19
- 연락처: 전화 02-6181-6172
팩스 02-784-1990
- 메일: info.globalelim@gmail.com
- 홈페이지:
1) 글로벌엘림재단 globalelim.com
2) 엘림다문화센터 elimcenter.kr
3) 글로벌트라우마센터
globaltraumacenter.com
4) 글로벌멘토링센터
globalmcenter.com



▼ 주한외국대사, 대학총장, 언론인 초청 오찬회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ti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살아가기

장신대 신대원 3학년
YDMN 간사
이문동교회 초등부 전도사
유학생 출신(몽골인)



강돌 간사

몽골에서 한국으로

살롱! 저는 몽골에서 온 강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6년에 태어나 18살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지는 어느덧 8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춤입니다. 처음으로 제게 춤을 가르쳐 준 분은 저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언니, 오빠 그리고 저를 위해 사셨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춤을 배워 저는 현재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연기 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의 배우로 뽑힌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연기자의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기자였던 엄마는 막내인 저를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의 친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 유학을 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언니를 보러 갈 기회가 생겨서 난생처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하며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처음 보았는데, 건물이 여러 개로 캠퍼스를 이루고 심지어는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한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몽골 국립예술대학교 입학준비하고 있던 차에, 언니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저는 "한국에 와서"란 말만 듣고도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장충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장충교회였습니다. 몽골에 있었을 때도 한두 번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간 적이 있지만, 사실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도 잘 못하고 갈 곳도 없는 저를 교회에서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처음으로 교회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몽골 출신의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서로가

가족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원체 좋아했기에 교회에서 찬양할 때 기타 소리,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듣기 위해, 몽골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기까지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의 입학 테스트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는 단순한 레벨 테스트인데, 문제는 언니가 "꼭 2급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가 가나다라를 배우는 데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만약 제가 2급을 따지 못할 경우 그냥 몽골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달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망의 시험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2급에 붙게 도와주세요. 만약 2급에 붙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닐게요." 그리고 시험을 보았는데, 2급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때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3학기 동안 장학금도 받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몽골 기독교 유학생 단체인 YDMN(Youth Diaspora Mongolian Network)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용으로 유명한 세종대와 연극영화과로 유명한 동국대에 입학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곳의 대학교 입학 실기고사를 모두 치러야 했는데, 저는 춤이 가장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발가락을 갑자기 다쳤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경우 한 달 동안 춤을 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시험을 보고 나서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발가락이 아픈 상태로 춤을 추면서 실기고사를 보았습니다. 결과는 두 군데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합격생 중에서 저만 유일한 외국 학생이었고, 동국대학교는 300여 명의 외국 학생이 응시를 해서 5명의 외국인만 합격했는데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어려움

저는 동국대 예대로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경험한 선배배 간의 군기 문화는 몽골 사람인 제게 대단히 큰 문화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선배들에게 인사드리고, 극장 및 연습실 등을 청소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크게 꾸지람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울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함께 입학한 외국인 동기들은 한두 명씩 사라져갔고, 친언니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YDMN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과 몽골 친구들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저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신자였던 제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영혼은 성장하였습니다. 그 예로, 처음에 저는 대학 생활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실망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을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싶었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나 싫었고 남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저의 처지를 비교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한 곳은 공장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한 것으로 돈을 버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등록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땀과 시간과 힘이 합쳐져야 생긴다는 것을 체험한 이후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YDMN의 공동체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성격에서 고집이 센 부분이나 심한 감정기복 같은 모난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주변에서 알려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중심적 삶이



▲ 2020 모델 콘테스트 수상 사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창조원리이자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자주 침잠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인 제가 교회의 동생들을 배려하고, 진로상담도 해주고, 밥을 사주며 제 안에도 위로의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YDMN 공동체와 동대문에 있는 몽골타운 앞에서 춤으로 버스킹 행사를 한 경험은 제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수익을 통해 몽골 내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쓰레기장에서 놀지 않고 농구장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버스킹을 하며 크고 화려한 무대보다 누군가를 돕는 무대가 더 가치 있는 무대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외에도 YDMN 공동체와 함께 몽골 유치원 건축 후원과 병원치료 중인 어린이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한 자선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은 무대와 함께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무대에 서면 행복해지는 사람", 또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무대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에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교수님께 차별을 당하고, 배역까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제가 맡은 양상블이 하나님께

서 주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작은 것에도 더 순종하고 배우려 노력하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의 사건으로 나의 교만함과 자만을 내려놓고 그것을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친절을 배우게 되었고, 3학년 때의 일을 통해서도 나를 객관화하는 방법과 겸손과 순종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은 제가 간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시간이 흘러 성장하듯이, 하나님은 제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

동국대학교 연기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원에 입학하려 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입학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아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주변에서도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보해주었는데 왜 불합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슬럼프가 찾아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목사님이 '뽀 내려온다'라는 독특한 노래와 춤이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제게도 영상을 찍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2~3시간을 짧게 준비하고 교회 옥상에서 '뽀 내려온다'의 춤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이 나서 영상 조회수가 무려 28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KBS의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PD님에게 연락이 와서 프로그램에 5분 정도 출연해 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몽골의 공주 연기를 하며 몽골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세워가며 성장하기

한국인들의 해외 유학생 모임인 KOSTA가 있듯이, 몽골도 MOSTA(Mongolian Students for All Nations)라는 유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모이는 MOSTA는 많이 모이는 해에는 1천 명 정도의 몽골인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임에서 공연팀장으로 몇 년간 섬기며 한국에 거주하는 재능 있는 몽골 청년들을 오디션을 통해 모집하여 무대를 올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략 10~20명을 모집하여 3~4개월을 연습한 뒤 무

대에 서는데, 청년들 중에는 연습에 늦게 오거나 빠지고 또는 팀장인 저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제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몇 번을 목사님에게 안 하겠다고도 했었습니다.

리더로서 팀원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지만, 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 혼자 돋보이는 데 집중하여서 옆을 돌아볼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MOSTA를 통해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서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과정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대를 올린 후, 몽골의 인기 크리스천 가수 '나키'가 MOSTA에 참석하여 우리 공연을 본 다음 "내가 평생 무대에 올리고 싶었던 공연을 너희들이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든 힘들이 쫓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은 한국 어린이 성경 콘텐츠 '히즈쇼'의 어린이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뮤지컬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5개월간 연습하고 정식으로 무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연장소를 찾지 못해서 무산될 뻔도 했지만, 제가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기적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연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의 무대이자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공연했던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몽골 청년 10여 명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올렸습니다. 공연의 팀장 역할을 맡으며 스스로 돋보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몽골어로 진행된 공연인데도 공연을 본 한국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며 자신들의 교회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여러 차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엄마가 아프셨을 때입니다. 제가 잠시 몽골에 귀국했던 어느 날, 엄마가 아프시다길래 함께 병원에 갔더니 엄마에게 폐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암세포가 뇌와 척추까지 전이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는 돌아가실 것이고, 나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것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기 암으로 한창 고생하실 때, 하루는 친척언니가 찾아와 무당을 데리고 곳을 하면 엄마가 나을 것이라 하면서 돈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척언니는 며칠 뒤 자신이 그 돈을 대줄 테니 곳을 하자면서 엄마는 그냥 옆에서 있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친척언니는 답답해

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이 예수를 믿기에 천국에 갈 텐데, 내가 먼저 거기 가서 우리 딸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두 딸들이 갈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잠시 먼저 가는 거야." 그렇게 엄마는 영원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수일 전부터 엄마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세력들이 엄마를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평안히, 고요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고, 그 삶이 내 눈에는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 꿈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1분에 5L의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액이 계속 순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의 날들을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자 YDMN 공동체와 함께 오늘도 달려갑니다.



한국오엠(Operation Mobilization)의 다민족 사역

한국오엠 대표
KWMA 정책위원



글

조은태 대표

국제 선교대회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There is no boundary between sending fields and targeting fields any longer, because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일 것이다. 이제까지 파송국가(sending fields)라 함은 북미주를 비롯하여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의 나라를 지칭했다. 그러나 유럽은 더 이상 파송 국가가 아닌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전은 전 세계를 신유목 사회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고향과 민족을 떠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선교에 전후방이 없는 선교의 전천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유학으로, 비즈니스로, 혹은 결혼으로 한국에 몰려오는 다민족들은 선교전략 면에서 너무나도 귀한 선교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한국 오엠은 한국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 비전

오엠의 비전은 'We want to see vibrant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among the least reached'이다.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전은 먼 곳의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오엠 국내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비전으로 한국오엠은 다민족 선교팀을 발족하였고, 사역을 통해 한국 땅에 들어온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 열방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 한 가정의 중동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한국으로 유학 온 한 미얀마 형제가 헌

▼ 서울 다민족 교회(Global Family Church) 사역



▼ 광주 다문화가정 아이들 대상 방과후학교



신하여 내년 초 단기선교사로 '돌로스 호프' 선교선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2. 전략

오엠은 철저하게 지역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선교 현장에 눈을 뜨게 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선교지로 해외 다문화권 사역자들을 동원하여 지역교회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국제 유학생, 노동자, 난민들을 섬기고자 한다. 이미 단기로 3개월씩, 혹은 2년씩 핀란드·미국·홍콩에서 다국적 팀이 함께 사역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 사역은 몇몇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교회가 시대적 변화 가운데 함께 비전을 보고 동역할 때 선교적 시너지가 일어난다. 사역의 방향은 행사 위주의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선교의 주체로 쓰임 받도록 돕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오엠은 지역교회에 필요한 기본 훈련을 개발하여 그들을 돕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문화권 제자훈련 콘텐츠와 예배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 만일 한국교회 중 5천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여 다민족 형제자매를 10명씩 주님의 군사로 세운다면, 5만 명에 이르는 선교사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훈련

오엠은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타문화권 민족을 위해, 누구나 복음을 쉽게 전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자 삼는 사역자 훈련(TDM: Training Disciple-Makers to Multiply disciples)'을 진행해 오고 있다. 훈련은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진행되며, 해외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10여 개국에서 약 200명이 이상이 훈련을 받았다. 올해 훈련은 11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14, 16, 21, 23일 오후 8~10시), 선교후보생·해외 현지인 사역자·다민족 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한다.

4. 사역

TDM 훈련을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사역을 시작할시, 오엠은 다민족 사역을 위한 전반적 컨설팅과 더불어 사역자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사역방향과 조직을 구성하고, 몇 주간의 사역자 타문화 훈련을 거치면 실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지역교회에 헌신된 4명의 일꾼(Up-Reach, In-Reach, Forward-Reach, Out-Reach)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다.

5. 현장

한국오엠은 현재 부산, 광주, 서울에서 다양한 모델로 다민족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 중이며, 광주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지역교회와 더불어 다민족 교회(Global Family Church)를

개척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매 주일 오후 4시에 다민족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무료 한글교실 운영을 통해 한글을 배우러 온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제자 삼는 사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다민족 교회를 통해 다민족 사역을 하기 원하는 한국교회에 예배, 제자훈련, 어린이 사역 콘텐츠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곧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말레이 민족을 위한 다민족 사역도 준비 중에 있다.

6. From all nations to all nations

다민족과 국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선교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고효율의 선교전략은 없을 것이다. 한국오엠은 다민족 선교팀 산하에 탈북자 사역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을 통해 북한사람으로는 최초로 한 형제가 '로고스 호프' 선교선 사역에 6개월 동안 섬기고 돌아왔다. 형제를 통해 그들 가운데 거룩한 반향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오엠의 사역은 헌신된 몇몇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열방들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전문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동일한 비전으로 지역교회와 협력하여서 한 민족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 그들이 다시 열방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역수출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Training Disciple-Makers to Multiply disciples

'다민족선교를 위한 제자삼기의 원리와 실제' 강의와 워크숍
특전 :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과 오엠선교사 지원서 훈련해택

강사 한국오엠 대표 조은태 목사
전) 러시아 교회개척 사역
전) 호주에서 다민족교회 개척 및 국제유학생 사역13년
전) One Family Church Lead Pastor (호주 시드니)

참가비 3만원(교재비, 훈련비)
문의 한승묵 선교사 031.698.2372

영어, 한국어 동시 강의

내 아들로 온 열방을 위한 복음 전, 제자훈련
..... 한국 오엠 TDM 훈련은 제비 깃털의 열매를 증언합니다.
다시 제자가 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화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4,16,21,23일 (화.목) 8:00~10:00pm

선교적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디아스포라신문은 정기적으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연구보고서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본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본고는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선교전략 기반구축의 필요성' 내용을 이전 호에 이어서 수정·요약한 글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까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하나님은 오늘날 국제협력 관계 및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을 부흥된 한국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선교방식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의 역사

국내 이주노동자 선교사역은 주로 공단 지역에 위치한 개교회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작은 형태의 모임이 서서히 결성되면서 1992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92년 7월 희년선교회(이문식 목사)는 구로공단의 필리핀인 중심으로 영어예배를 시작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이 당면한 의료·노동·인권 문제를 상담해 주며 지속적인 접촉점을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 감리교 지인식牧사는 경기도 광주지역에 재한

외국인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다국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도 인권상담과 의료봉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교포 사역은 '91년 2월 초부터 서울역 전도팀을 구성하며 사역을 시작한 중국교포선교협의회(총무 강성실 목사)가 있었으며, 주로 대중 집회나 양육 집회 형식으로 12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또한 신림동에 사랑의집을 운영하여 공동생활을 통한 신앙훈련을 하였다. 그 밖에도 성공회 성생원교회(이정호 신부), 은혜교회(고수영 전도사), 갈릴리교회(인명진 목사) 등으로 외국인 대상 초기 선교사역이 확산하였다.

사역하는 단체들 간의 정보 교환과 경험 나눔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연합모임이 형성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위한 최초의 연합모임은 희년선교회가 주관하여 복음주의권을 중심으로 '93년 3월 남서울교회에서 모였다. 모임에는 전호전 교수의 설교와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이문식 목사(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선교적 과제), 강철민 목사(중국교포 사역), 이득수 간사(무슬림 사역), 지인식 목사(외국인 교회사역), 강명규 간사(공단 지역에서의 총체적 선교사역), 최효식 목사(지역교회에서의 외국인사역), 한정국 선교사(바람직한 외국인 선교의 방향) 등이 발제에 참여하였다.

1993년 3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한국교회노동자선교회(NCC '92년 11월 발족, 인명진 대표) 주최로 '외국인노동자 선교정책 협의

회' 모임이 개최되었다. 모임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인명진 목사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성생원교회·희년선교회·재한외국인선교교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종합토의에서 복음주의단체 혹은 진보단체의 성향을 떠나 외국인노동자 선교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제의에 따라 협의회 모임을 재구성하기로 합의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3년 7월에는 외국인노동자 선교를 위한 연합모임이 갈릴리교회에서 개최되어 '한국교회 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의장으로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 이만열 장로(희년선교회)를 선임하였다. '94년 12월에는 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실무자 김교철 선교사)가 창립되어 2023년 현재 인천 외국인선교협의회(회장 허은열 목사)에 이르게 되었다.

1995년에는 전국 40여 곳에서 외국인 선교사역이 시작되었고, 2009년 들어서에는 '이주자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가 창립되어 전국 540여 개 이주민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이주자 선교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여러 단체가 연합해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에 이르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 오륜교회 비전빌리지에서 KIMA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8년에는 국내 무슬림 선교 연합기관인 '열무김치'(회장 김종일 목사)가 창립되어 2023년 현재까지 선교 연합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GMS 이주민선교연합회가 제주에서 이주민선교포럼을 개최하였다.

종교이념 대립 양극화의 극복 요구

이주노동자 선교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개인구원은 물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총체성(전인성)을 띠어야 한다. 종교이념의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근본주의 신학노선의 교회는 복음전도의 우선성만을 내세워 세상에 대한 사회적·역사적인 책임이나 현실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치우쳐 있다. 반면 진보주의 신학노선은 복음의 근본적인 개념을 간과한 채 지나친 상황화에 치우쳐 인권운동이 곧 선교운동이라는 방식에 쏠려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종교이념을 끊임없이 내세운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선교의 사각지대에서 온 다양한 종교의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전도 사역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한국 땅으로 불러들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도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유입 현상을 경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선교적인 시선으로 함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민을 향해서 전도와 권익옹호 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종교이념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www.diasporanews.kr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이주민선교 역사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1)



KPM 국내이주민선교 지역장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센터장

글

정노화 선교사

한국 해외 이주의 역사
한국은 아픈 역사가 많은 나라이다. 그중에서도 이민의 역사는 슬한 고통을 감내하고 일어난 역사라 할 수 있다. 1902년 공식 이민이 시작된 이래로 대한민국은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이주민들을 더욱 잘 섬겨야 할 책무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 이루어진 한국의 해외 이민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우측 표와 같은 흐름이다.

한국으로의 이주 역사
한국의 해외 이민은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곧이어 한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시작되었다. 중동 건설노동자 파견과 결혼이민자 등으로 대거 해외 이주하던 시절은 모두 뒤로 한 채 국내로의 이주가 부상하였다.

1) 1988년 서울올림픽의 영향
한국 역사에서 88올림픽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때는 냉전체제가 끝나가는 세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전에는 공산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민주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여 공산 진영 및 민주진영의 159개 국가가 함

지역	연대	원인과 현상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	1869~1870년	고종 초기 함경도 지역 대기근 발생 - 연해주 중심 이주 (1만 명)	
	1890~1905년	일제 탄압을 피해 이주, 만주 북간도에 한인마을 명동촌·윤동주 고향에 명동학교 설립	청나라의 만주지역 봉금령 해제, 이주와 황무지 개간 장려, 1919년 31 운동에 만주지역 31곳에서 12만 명 이상 만세
	1920년대	독립군 형성(봉오동 전투 등)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 황무지 개간을 위해 강제 이주	1930년 60만 명에서 1940년 150만 명으로 증가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6천km) - 중앙아시아	약 17만 2천 명 이주
하와이 지역	1902년	인천에서 121명·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체검사 합격한 102명 출발, 최종 86명 상륙	1905년까지 64차례 7,400여 명 이주
멕시코 지역	1905년	1천여 명 멕시코 애네켄 농장 이주	영화 <애니깽>의 배경
해외 입양	1955년부터	20만 명 이상이 해외 입양	
독일 광부와 간호사	1963년	1962년 해외이민법 제정, 남미 지역으로 농업이민 출발, 광부 약 8천 명·간호사 약 1만 명	
베트남전 참전	1965~1973년	5만 명의 병력 규모(합산 누계 30만 명) - 56만 건 이상 작전 수행	
중동 건설근로자	1973~1988년	1975년 6천 명, 1978년 10만 명, 한때 20만 명까지 이주	

〈 표. 한국의 해외 이민역사 (필자의 자료정리) 〉

께 올림픽에 참가하였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대회로 기록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 소련에 문호를 개방해야 했고, 북방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었다. 1990년에는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 교류를 통해 관계가 호전되었고, 이는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의 실행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본격화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부터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와 1993년에 실시한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3저(低)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양성되었다. 반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요청되었고,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여 1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중심의 노동자들을 국내 3D업종 제조업에 연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연수를 하는 단계이니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 하에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받는 임금의 30% 수준만 받으며 일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탈하는 순간 3~4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의 이동도 자유로우며 훨씬 오랜 기간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그곳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계약한 사업체가 열악하거나 그밖에 건강상의 문제나 위험요소가 있어도 직장 변경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되었다. 이탈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방지를 위한 여권 압류, 기숙사 밖에서의 감금 등과 같은 인권침해도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 노동기구와 국내 인권단체 등의 계속되는 반발로 2년 연수 및 1년 취업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에 다시 1년 연수 및 2년 취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3)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포

산업연수생은 초기에 2만여 명에서 2002년 14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2003년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30만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80%가량이 되자 정부는 일시 합법화 조치를 했다. 2004년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산업연수제와 병행 운영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였다.

동포들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2002년부터 취업관리제 규정을 제정해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하였다. 허용업종은 식당·서비스업·사회복지·간병 등이었으며, 2004년 고용허가제에 통합되면서 '특별고용허가'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재외동포법의 위헌 논의 등을 거쳐 2007년 3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동포가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로 전환하여 많은 동포들의 취업이 시작되었다.

4) 결혼이주민

1980년대 당시 인구가 줄어가던 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 주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제도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일자리 문제 또는 농촌과 도시 간의 인프라·소득수준 등의 각종 격차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국제결혼이다.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금으로 300~500만 원가량을 지원하였고, 1999~2000년에 농촌 총각과 동남아 여성들의 매매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2000년대에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건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로 이러한 방식이 매매혼, 국제인신매매라는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이혼·이탈·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의 제도 정비와 함께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결혼의 양상도 매우 달라졌다고 본다. 농촌 중심에서 대학에서 만난 유학생과의 결혼으로, 세계화와 통신의 발달을 통한 자발적인 만남 등으로 양상이 변화되었다. 농촌보다는 도시의 국제결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작금의 국제결혼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약 80%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여성에 한하여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2가지 이상의 문화로 형성된 가정이란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배우자'라는 법적 용어를 통해 국제결혼 남성과 여성을 분류한다.

이들에 대한 선교는 사회의 이슈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되었는데, 그 적극적 방법으로는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다문화가정의 학습 지원 △돌봄 지원 △다문화학교 등이 있다. 한국교회

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서서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시선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갈 길이 멀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온 이주민 가운데 고려인동포, 시리아·예멘·미얀마 난민, 우수한 전문인력,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인다. *유학생(국제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디아스포라신문 2023년 8월호 6면 이병수 고신대학교 총장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이주민선교 실태

*한국 이주민선교 실태에 앞서 한국 이주민선교의 역사는 이번 호 7면 KIMA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이주노동자 선교사역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이르렀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50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 후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9~10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모두 90곳이었다. 이듬해 11월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에는 115곳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시민운동단체나 개신교 외의 타종교 단체를 포함한 숫자이다. 필자의 석사 논문에서 2003년 10월 개신교 주요 교단 중 이주민선교 참여 교회는 6개로 나타났고, 5년 후 2008년 4월 김영애의 논문에는 199개 교회로 집계되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변화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의 변화에 교회가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 2013년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조사 당시 사역 단체는 368개로 집계되었다.

2022년 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한국선교연구원(kriM)

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 중 국내로 파송되어 이주민을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는 562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하고, 국내의 목회자·평신도 등을 합해 1천여 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나아가 200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고, 세워진 이주민교회는 1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허명호, KMQ 2020). 이는 2013년 필자가 각 국가별 교회 대표자들에게 물어 파악한 600여 개의 수효에 비하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주민선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13년 한국교회희망연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주민선교단체 및 교회의 설립·사역 목적을 살펴보면 통전적 목적·전도·세계선교·교회개척 등 복음전파의 목적이 80%가 되며, 인권·복지·봉사는 17%이다. 2019년 김영애의 조사에 의하면 이주민선교 대상은 이주노동자(82%), 결혼이주여성(57%), 다문화가정 자녀(51%), 유학생(42%) 그리고 난민(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교회(선교단체)의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종 행사(55%), 의료진료(51%), 상담(45%), 법률구조 활동(40%), 쉼터 운영(37%), 이·미용 봉사(36%), 결혼식·합동결혼식(25%), 사회통합 프로그램(24%), 신문·소식지 발간(12%), 컴퓨터 교실(6%), 집단행동(5%)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 호에 계속

본고는 2회에 걸쳐 게재되며, 다음 호는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ightlaw.com
www.dl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모세: 이주민 지도자의 자질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글

Dr. Tereso Casiño

지도자의 자질은 사람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다. 모세의 삶에는 120년 동안 축적된 지도자의 자질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자질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자라면서 길러진 부분도 있으며, 여러 주요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것이기도 하다. 모세가 갖춘 대부분의 자질은 40세까지 애굽 왕가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길러졌고, 나머지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주하여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은 모든 출애굽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모세의 리더십에서 특히 돋보이는 자질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모세의 리더십은 사회 정의를 수반하며, '공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모세는 애굽인 감독관이 히브리인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즉시 히브리인을 변호했다. 그 과정에서 불행히도 그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지만, 그 이후에도 모세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연민을 품고 살아갔다.

'인내심'은 모세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였다. 모세는 감독관을 죽이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애굽에서 도망쳤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된 그는 이국땅에서 살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40년간 양을 쳤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과 같아졌지만, 모세는 집을 떠나서도 인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 나갔다.

모세의 '적응력'은 그의 이주생활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미디안 생활은 모세가 현지 문화와 관습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모세는 애굽에서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고향을 떠난 후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현지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모국의 문화체계와 규범에 몰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는 '자기 인식'이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제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를 상대하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충동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맡은 바를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제공해 주셨지만, 모세는 거듭 신성한 임무를 회피하며 머뭇거렸다. 모세는 스스로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을 때 그는 자신의 도덕적 실패를 인정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일도 죄를 인정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모세는 도덕적 실패와 더불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다(출 6:12).

'겸손'은 모세가 갖춘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였다. 그의 겸손은 특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잘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히브리 백성의 곤경을 중재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 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며 자신을 평가했다(출 3:11). 또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지원을 제공받고 나서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겸손함을 유지한다(출 4:13). 모세의 반응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성공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세가 지닌 겸손이란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또 다른 자질은 '집중력'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재앙이 징조로써 나타날 것인지, 맡은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 또한 모세는 마침내 장인과 재회했을 때 이드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사람들의 불평조차도 주의 깊게 들으며 언제나 경청하며 살았다.

'결단력'은 모세의 리더십에 크게 기여한 요소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마침내 순종하여 장인인 이드로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말에는 애굽에 남겨진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출 4:18) 이에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대답하며 모세를 지지했다.



이처럼 모세의 의사결정 능력과 일을 완수하는 능력은 출애굽 기간 동안 그의 지도력에 크게 기여했다.

모세의 지도력을 결정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지르려 할 때 백성들은 당황하여 모세에게 불평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 14:11~12)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힘이 있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한편, '학습 능력'은 모세의 리더십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하나하나에 매달렸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주저함을 딛고 마음을 열어 배우고자 했다. 히브리 인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모국의 문화체계를 배워나갔다. 또한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이주자 공동체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백성들이 쉽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모세의 짐을 줄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출 18:25~26)

'끈기'는 모세의 리더십을 유지시키는 요소였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날 때마다 고집과 억지를 부렸다. 그

러나 모세는 바로의 태도가 아무리 강경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다. 미디안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주하는 동안 그의 끈기는 오랜 세월을 걸쳐 힘이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고, 순종했으며, 용기가 넘쳤다. 모세는 초국가적 이주 지도자로서 히브리 공동체 전체를 이끌 자질을 부여받았다. 그의 리더십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

했다. 모세의 이러한 자질은 그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다. 모세의 리더십은 그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형성되었다.

www.diasporanews.kr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우리랑 합창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발안)에는 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 위주의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1.11.1 기준)에 따르면 화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6만 2524명으로 안산(9만 4914명), 수원(6만 5885명), 시흥(6만 4570명)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반면에 화성 거주 외국인주민의 자녀 수는 5407명으로 안산(5980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이는 수원(5284명)과 시흥(4962명) 외국인주민의 자녀 인구를 앞서는 숫자입니다.

화성에는 총 다섯 개의 다문화 관련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세 개는 향남에 위치한 한울초, 발안초, 제암초입니다. 그만큼 향남에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2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지역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양석수교회에서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 받아 2022년 3월 '사자와어린이 양 작은도서관'(이주민센터)을 개관하였고, 향남 거주 고려인

을 비롯한 이주민 가정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어 교실·북아트 교실·찾아가는 놀이터 등을 통해 이주민 아동을 만나고, 냅킨아트·리본아트·미술심리교실 등을 통해 이주민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5월, 인근 공원에서 지역 이주민을 위한 '어울림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향남에서 사역을 하며 보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분리'된 모습입니다.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놀고, 한국 아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놀습니다. 이미 문화와 언어가 나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와 배경이 달라 이웃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배경이 다른 이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음악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음악을 자주 활용하는데, 음악은 서로 다른 타인을 하나 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합창단들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한국 어린이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대부분이며 다국적 합창단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주민 아동과 선주민 아동이 함께 모여 노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노래하며 친구가 되고, 부모들은 자녀의 합창 모임에 어울리며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합창단이 '우리랑 합창단'입니다. '우리랑 함께 노래하자!', '우리랑 함께 놀자!'는 의미를 가진 우리랑합창단은 지난 7월에 시작되어 고려인 아동 6명과 한국 아동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

후에 모여 연습하며, 지난 9월 24일에는 화성마을사랑방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50여 명이 모였고, 러시아 음악스튜디오 알레그로의 찬조출연과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이머시브 음악극 <길냥이 빙글이의 노래>도 함께 공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랑합창단을 비롯하여 사자와어린이양 작은도서관(이주민센터) 사역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복음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준비 중인 다문화 대안학교를 통해 이주민 아동들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글 김혁준·이진아 선교사
(GMS, 위대선교회)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귀국 선교사가 되어 국내 유학생 선교를 하기까지..

HOPE선교회(전문인협력기구)
現 국내 유학생 선교사
前 미전도종족 티벳족
전방개척 선교사



송영광 선교사

1988년, 충북 영동 심천 미루나무 섬에 CCC 여름수련회로 모인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뼈를 묻을 각오로 가서 중국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1만 선교사'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1만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1990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중국에서 찾아온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선생님 같은 분이 중국에 꼭 필요합니다"라며 제게 중국에 가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주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신 지 16년 만에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가족들의 동의와 헌신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들어갈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미전

도종족인 티벳족 대상으로 전방개척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렇게 뼈를 묻겠다고 헌신한 한국 선교사들의 90%가 강제추방당하는 것을 보며 긴장을 놓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 때까지도 은혜로 견디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2년 끝자락에 큰딸을 결혼시키고 셋째를 대학에 보낸다고 잠시 한국으로 나왔던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곳에 남겨둔 모든 것을 정리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주님께서 거저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땅의 동역자들에게 다시 거저 주는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강제추방은 그 땅의 권세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중국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성균관대 국제유학생교회(ISC-SKKU: International Student Church Sungkyunkwan University)로 인도하였고, 지금은 ISC-SKKU의 중국 유학생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

서 온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ISC-SKKU의 수원캠퍼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중국 유학생 사역에 동역하고, 중국 유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ISC-SKKU의 서울캠퍼스 교회에서는 설교와 성경공부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대학생 사역은 이목을 많이 끌며 사역이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의 중국 유학생 사역은 보다 열린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중국 선교의 블루오션과도 같은 사역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이 이주민에 의해 교회를 세워 역파송을 이루는 것과 달리, 유학생 사역은 그 방향 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다수의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유학생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학생의 성장과 성숙이 아닌 교회 및 봉사자의 자기만족적 헌신과 성숙에 집중된 사역은 주일 예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 ISC-SKKU는 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ISC-SKKU가 시작된 지 10년째 되던 2020년 3월에는 성대 서울캠퍼스에도 유학생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대 유학생교회에서 훈련받은 유학생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베트남·중국·르완다 등 자국으로 역파송되었고, 한국 지방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어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유학생 사역을 위하여 파송받은 어느 중국 이주민 선교사는 현재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ISC-SKKU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은 건국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오랫동안 유학생 사역을 해오신 신기현 목사님과 성균관대 교수님들의 헌신과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SC-SKKU 교회는 매일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새벽기도회 후에는 교수님들이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해 줍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제자와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ISC-SKKU가 건강한 유학생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던 것입니다. 유학생을 향한 동역자분들의 사랑과 마음이 캠퍼스 안의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써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SC-SKKU로 연결되어 복음으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ISC-SKKU의 유학생 사역은 서강대 유학생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다른 지역 캠퍼스의 기독교 교수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듯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유학생들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ISC-SKKU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헌신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지금 이곳에서 국내 유학생 선교를 하며 만나는 학생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의 동역자들과 언젠가 다시 만나 중국 미전도종족인 티벳족을 향해 전방개척 선교의 길까지 걷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 끝 선교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 유학생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습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한 사람 세 문화: 카렌, 태국, 미국

GMS 파송 선교사
아신대학교(ACTS) 연구교수
태국카렌침례총회 -
실로암신학교 교수



오영철 선교사

두 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사들이 그런 경우이다. 선교사들은 다문화 역량에 대해 요구받지만, 실제 감정적인 영역까지 두 문화를 오가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문화를 오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몇 개의 문화를 오가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느낀다. 최근 나는 매우 놀라운 문화 역량을 가진 청년을 만났다. 그는 어떠한 장벽이나 부담 없이 세 개의 문화를 완벽하게 넘나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애니나 세(Eh Nina Say)'이며, 28세의 미국 학교 영어 교사이다.

필자는 올해 9월 초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역의 카렌 난민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애니나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필자를 초대하여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애뮌' 목사의 외동딸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5천여 명의 카렌 가운데 최초로 미국 학교 교사가 된 청년이다. 나는 애니나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와 교사가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가 궁금해져 그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애니나는 대화 도중 나에게 태국어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가능하다고 하니 이내 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카렌어·태국어·영어를 혼용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였는지 알기 위해 인생 여정에 관해 물었다.

애니나는 1995년 태국 중남부에 위치한 '출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얼마 안 되어 애니나의 가족은 다시 미얀마의 카렌 지역으로 갔는데, 그들이 태국 시민권이 없는 실향민이었기 때문이다. 애니나가 세 살 때 아버지인 애뮌 목사는 당시 카렌 정부의 교육부 일을 했고, 가족을 '옴삐양' 카렌 난민캠프에 등록했다. 교육부 일은 근처의 주요 도시인 '매손'에서 진행되었기에, 애니나는 카렌 난민으로서 드물게 유치원 때부터 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친 2008년, 애니나는 난민 신분으로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학교는 6학년을 건너뛰고 7학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전혀 다른 언어와 환경 속에서 월반까지 하여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학교에 한 명 있어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을 받은 애니나는 일 년 뒤부터 어렵지 않게 공부를 따라갈 수 있었고, 2021년에는 위스콘신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애니나는 본래 간호사를 준비하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 제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학교에서 3년 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는 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소수민족 카렌교회'가 주변의 민족들에게 선교하기로 화두가 옮겨졌다. 애니나와 대화하며 그녀 안에 주위 민족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뉘다 훨씬 큼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예상은 비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라면서 경험한 세 개의 문화에 대해 어떠한 장벽도 느끼지 않았다. 애니나는 미국, 태국 그리고 카렌이라는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진입할 때 단지 세 가지의 언어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가 속한 세 문화의 일원 자체가 되었다.

예컨대 애니나는 미국 학교의 교사로서 다양한 민족 배경의 미국인 교사와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또한 미국에 있지만 카렌 민족으로서 카렌어와 카렌 문화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도 마치 고향에 온 듯이 받아들이고, 태국 친구들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처럼 애니나에게는 전혀 다른 삼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작동하고 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 역량을 지닌 것이다. 동질 문화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그 문화를 배워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교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대화는 선교적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주제로 나아갔다. 나는 애니나에게 물었다. "자유도, 기회도 없던 난민에서 세계 초강대국의 시민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사라는 직업은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태국 국경에 살던 카렌 난민에서 미국 학교의 교사가 된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의 70% 이상이 흑인이고, 대부분이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니나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넘어 그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역할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깨어진 가정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일이다.

나는 애니나에게 도전 겸 격려를 건넸다. "청년의 모습 자체가 역기능가정의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을 겁니다.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미국뿐만 아니라 태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애니나는 그녀가 현재 가르치는 미국의 아이들보다 현저히 기회가 제한되었던



처지였다. 국적도 없고 버마군에게 핍박받는 소수부족이었던 그녀는 드라마 같은 여정을 거쳐 미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다. 이는 한 민족과 한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녀가 난민일 적에는 외부도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하면서 그 흔적 또한 삶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통해서 애니나는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학군이 좋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고 흑인들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애니나는 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애니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빛'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학교를 방문해 보았다. 그녀는 유치원 4반을 담임하며 영어를 가르치는데, 유치원생들이 집중하며 듣는 모습에서 애니나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깨어진 가정에서 온 아이들의 마음을 애니나는 누구보다도 잘 체휼하고 있다. 아픔의 길을 겪었기 때문이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녀는 내가 가르치는 실로암신학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태국 카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이라는 여정을 걸었기에 애니나는 카렌, 태국, 미국의 다중 문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다. 다음에 이어질 그녀의 선교적 여정이 기대된다.



▲ 카렌, 태국, 미국의 문화적 역량을 모두 지닌 애니나

수도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마음태국인교회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1324-35

T 010-9874-4430

H www.thairuamjai.net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수요셀모임 수요일 오후 9: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9: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5

T 02-6181-6154

H www.yfgcinternational.com

영어예배 주일 오전 9:00 / 11:00

영어청소년 주일 오전 11:00

영어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4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00

몽골예배 주일 오후 1:30

일본예배 주일 오후 1:0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이주민 예배

서울네이션스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원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경상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j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전라권역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 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구독 신청 QR



**Celebrating 40th year
of God faithfulness**

1983
2023



ACML '40
**Asian Church
and Mission in
A New Landscape**

INTERGENERATIONAL CONSULTATION

**23-27
October
2023**

**Sentul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ICC)**
Sentul City, Bogor, Indonesia

CO-HOST



PGLII
(The Fellowship of Indonesian
Evangelical Churches and Institutions)



GEREJA BETHEL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 JAKART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bit.ly/ACML-40**

👤 Vania Christian 📞 +62 821 3193 9258
✉️ thenewlandscapesummit23@gmail.com